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충현

생명의 말씀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용홍 편집: 양재웅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

일시_ 10.28(금) 저녁7:00

주제_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마가복음 4:24)

강사_ 김성관 위임목사

대상_ 모든 성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갈 1:6).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전 2:2)와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아주 쉽게 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흐려져 가는 이 시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외치십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나오십시오.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은 바로 우리를 위해 마련된 복음의 잔치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을 비롯하여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벧전 4:7). 더불어 복음이 필요한 친지나 이웃들도 함께 참석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십시오(눅 14:23). 제3차 청지기훈련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제44대 장로피택자 주제발표

일시_ 10.21(금) 저녁7:00

주제_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기적

열 분의 장로피택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실시된 정규교육 외에도 매일 성경 66권 전체를 묵상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회개와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합니다(딤후 2:20).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나오셔서 기적 속에 담긴 복음으로 함께 충만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2011년 제5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배니눔)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친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들리신 첫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마 3:16~17). 신학 학자들은 이 사실에 거의 다 동의한다. 복음서를 엄청난 의심과 가지고 뒤집어 파고 헤치면서 진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학자들까지도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존적으로 체험하셨다(막 1:9~11; 마 11:25~27).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향해 아바라 부르는 것은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수께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셨다(마 14:36).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준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먼저 깨닫는 것을 살펴보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다(출 4:22; 렘 31:9).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명칭을 사용하시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가 친히 가리켜 사용한 명칭은 인자(Son of Man)라는 칭호뿐이다. 특히 구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을 사전만 놓고 찾아보면 여러 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혼동하게 된다(창 6:2,4; 욥 1:6; 시 82:1,6; 단 3:25).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관계되어 쓰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는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노래에서 발견된다. 이 찬양은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이다. 또 이 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되신다는 사상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중에 형성된 것이라든가 또는 예수께서 만들어진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생각들을 배제시켜 준다. 오히려 신명기 32장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 되시는가를 어머니와 아버지의 형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으며(신 32:6),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의 유일성을 나타내시고(신 32:15~16,39),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도록 보여준다(신 32:19~20).

모세의 120년간의 삶은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의 삶,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악의 세력과 모진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삶이었다. 그의 삶은 영원을 바라보았던 믿음이 삶이었다(사 90:1~4). 그는 세상의 삶을 체험하였고 기도하였다(사 90:9~10,12~13,16). 모세는 신명기 32~33장에서 마지막 노래와 유언을 하고 있다. 우리는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찬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들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어떠하였는가. 이 실제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의미로 그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또 이 관계가 어떻게 연약의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또 아들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지,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그 범위가 넓혀져서 우주적이며 종말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멘.

GOD CALLED ABRAM

⁽¹⁾The LORD had said to Abr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²⁾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³⁾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Genesis 12:1-3)

After the world rebelled against God at the tower of Babel, God called to Himself one man named Abram. God had commanded mankind to scatter abroad, but instead mankind defied God by congregating at the tower of Babel. Therefore, God confused mankind's language system in order for mankind to obey. Out of the world's confusion came a clear call from God to Abram. Through Abram's obedience, God created the nation of Israel. Today's Bible verses offer many lessons for individuals and nations longing for God's blessing. Let's look closely at God's call to Abram.

God called Abram to a life of faith, "The Lord had said to Abr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Gen. 12:1). Abram was a wealthy man in the land of Ur. If God called you out from a place of prosperity, do you think you could leave? Abram was asked to leave the known for the unknown. He was asked to turn from the wealth that surrounded him to the Word that called him. The proof of Abram's faith is evidenced in his obedience. He listened to God and went as commanded. During his journey, he refused to allow strife to grow amongst his brethren, "So Abram said to Lot, 'Let's not have any quarreling between you and me, or between your herdsmen and mine, for we are brothers. Is not the whole land before you? Let's part company. If you go to the left, I'll go to the right; if you go to the right, I'll go to the left'" (Gen. 13:8-9). Abram put his trust in God, not in wealth or what the world offered as better conditions. He tithed, giving Melchizedek, the priest of God Most High, a tenth of everything (Gen. 14:18-20). He relied on God's provisions, refusing the king of Sodom's reward, "The king of Sodom said to Abram, 'Give me the people and keep the goods for yourself.' But Abram said to the king of Sodom, 'I have raised my hand to the Lord, God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have taken an oath that I will accept nothing belonging to you, not even a thread or the thong of a sandal, so that you will never be able to say, 'I made Abram rich'" (Gen. 14:21-23). Abram lived a life of faith.

God called Abram to a life of fruitfulness,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Gen. 12:2). When believers obey there is always fruit! Hebrews 11:8-12 reveal Abram's fruit, "By faith Abraham, when called to go to a place he would later receive as his inheritance, obeyed and went,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he lived in tents, as did Isaac and Jacob, who wer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By faith Abraham, even though he was past age--and Sarah herself was barren--was enabled to become a father

because 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made the promise. And so from this one man, and he as good as dead, came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count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Only his faith made Abraham satisfied. Out of all the earthly joys to be experienced, only a life of faith can really satisfy. On the gates of heaven is the name of the twelve tribes of Israel (Rev. 21:12). Abraham's kindred name is even included in the genealogy of Jesus (Mt. 1:1). Abram is still producing fruit! His fruitful life here and in heaven was compensation for his faith.

God called Abram to a life of divine fellowship,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Gen. 12:3). Abram's relation to God was so close that to bless or curse him was, in effect, to bless or curse God. His friendship with God was mentioned by the author of 2 Chronicles 20:7, "O our God, did you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this land before your people Israel and give it forever to the descendants of Abraham your friend?" God kept all His promises to Abram. The promise that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was fulfilled in the coming of Abraham's seed, Christ (Gal. 3:8,16). Like Abraham, we too become a blessing to others as we walk closely with God. Romans 4:18-24 say,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and so beca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just as it had been said to him, 'So shall your offspring be.'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he faced the fact that his body was as good as dead--since he was about a hundred years old--and that Sarah's womb was also dead. Yet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This is why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The words 'it was credited to him' were written not for him alone, but also for us, to whom God will credit righteousness--for us who believe in him who raised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How wonderfully blessed was Abram because God called him and he obeyed? Can you think of anything better than to be God's friend?

My dear friends, Jesus is calling to you,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t. 11:28-30). I want you to come to the Lord with His word from this evil world. Will you respond in faith like Abram? Will you be an example of faith to others and keep the friendship with God? Which way do you want to go? Please open your heart to hear God's calling, and follow His wonderful and narrow pathway that leads to an eternal and fruitful life. Amen.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1~3)



김성완 목사

세상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방으로 흩어지라 명하셨지만, 오히려 인류는 바벨탑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류를 순종시키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혼란 중에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이 아브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셨습니다. 오늘날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아브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아브람은 우르 땅에 사는 본주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족한 가운데서 불러내신다면, 여러분은 떠날 수 있습니까? 아브람은 익숙하던 곳에서 떠나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즉 그는 자신들을 둘러싼 재산에서 돌이켜 그를 불러낸 말씀을 향하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아브람이 믿었다는 증거는 그의 순종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여행 중에, 그는 자신의 형제 간에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여 난은 우회하고 내가 우하여 난은 좌하리라”(창 13:8-9). 아브람은 하나님만 신의존했음을, 부나 재산이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모든 소산의 십분의 일을 드리는 십일조를 드렸습니다(창 14:18-20). 그는 하나님의 공급만을 의존했기에 소돔 왕의 포상을 거절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 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겠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에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창 14:21~23). 이처럼 아브람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열매의 삶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열매맺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2). 신자들이 순종할 때 항상 열매를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11:8~12은 아브람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임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 이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만이 아브라함을 만족시켰습니다.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 가운데, 참된 만족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의 문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계 21:12). 아브라함 자손의 이름은 심지어 예수의 계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 1:1). 아브람은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과 천국에서 누린 열매 맺는 삶은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삶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기록된 교제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3). 아브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친밀해서 그를 축복하거나 저주하면, 실상 하나님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교제는 역대하 20:7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니 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는 약속이 아브람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갈 3:8,16).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로마서 4:18~24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하고서 신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함으로써 많은 축복이 임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저는 여러분이 이 약한 세상으로부터 나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응답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놀랍고 좋은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영원하고 풍성한 삶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

십자가 복음

보혈로 씻기심 (요한일서 1:5-10)



신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태초와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가 시작하는 성경의 첫 머리에 빠지지 않았다(요 1:1; 요일 1:1). 그는 진실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믿었다(요일 1:2~4).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만들었으며, 놀라운 사귀의 비밀을 밝혔다. 이 비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다.

● **사랑하는 자를 씻기신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놀라운 사귀의 비밀은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를 씻기신다. 이에 대해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엡 2:1,3,5). 요한은 “그의 피”(계 1:5)로 해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만이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롬 5:8).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표라는 것이다(히 9:22; 갈 1:4).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 능력이 아니라 진심어린 회개이다. 너무 늦어서 회개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으

습한 성격의 어부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서신서(요일·이·삼)와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다. 이와 같이 성경의 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연약한 자들이었으며, 각 기자들의 기절조차도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셨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한때 권력과 영광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변한 뒤에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뿐이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자

로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

● **씻겨진 자는 하나님과 사귀에 있다** 잘 준비된 종교예식이나 어떤 훈련과정은 일시적이지만,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영원하다.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사귀를 가능하게 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여기서 말하는 사귀의 구체적인 행동은 회개이다. “나는 죄인 입니다”라는 회개가 하나님과의 사귀의 길로 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귀는 세상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귀보다, 축복과 성공이 보장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지금 그리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우리가 보혈로 씻겨진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공물을 베푸사 당신의 제사장장과 백성이 되게 하신다(벧전 2:5,9~10; 계 1:6).

● **미래를 바라보는 자를 씻기신다** 하나님과의 사귀에 있을 때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게 된다. 주님이 씻겨진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요일 2:25). 곧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도의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1~2). 이것이 인간이 계획하여 세운 유한한 미래가 아닌 영원토록 아름다운 엄청난 미래다(딤후 2:13).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가? 십자가를 붙들며 진심으로 회개하는가?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씻김을 받아 하나님과의 사귀에 있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확증되어 있다. 반면에, 보혈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유한한 현실의 성공과 축복만을 쫓아다니는 자에게는 영원한 애곡만이 있을 뿐이다(계 1:7). 씻김을 받은 자의 초점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다.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땀흘려 하고 있다”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벧 3:13~14).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보혈로 씻김을 받은 은총을 누리자. 아멘.

메시아의 죽음 94

칼 가진 자를 향하신 반응(누가복음)

에 속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셨기에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눅 22:48).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단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도”(눅 22:49).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보고,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다. 이것은 동산에 오르기 전, 만찬 때에 “검 없는 자는 검을 팔아 살지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이었다(눅 22:35~38).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핵심을 놓친 채, 검을 가지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줄로 착각했던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련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눅 22:28)이라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십자가 대신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라고 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충성심과 열정이 표현된 아름다운 신앙의 각오로 보이지만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이다.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었음을 보여 준다(행 1:6). 이와 같은 제자들이 저지른 일은 칼을 드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기대에 완전히 어긋났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닦게 하시더라”(눅 22:51). 이것이 누가가 기술하고 있는 칼 가진 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반응이다.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이 갓세마
데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유다가
이끄는 무리가 그곳

에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칼 가진 자가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칼 가진 자, 즉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자들을 향해서 바로 전에 매우 중요한 것을 요구하셨다. 그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다(눅 22:40,46). 그러나 제자들은 듣지 않고, 모두 잠만 잤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예언된 말씀을 막는 여러 식은 행동이었다. 제자들은 같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이것은 헛된 믿음이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을 삶으로 성취하며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도를 잡을 때 벌어지는 상황과 똑같은 일을 당하고 계신 것이었다(눅 22:37,52). 누가는 칼 가진 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다(마 26:54).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모든 성경에 쓴 바, 기록되었으니”라고 언급하시며,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것이다(눅 24:26~27,46~47).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고난 받고 죽는 대가치 순종하셨던 것이다(사 53:5,12). 그런데 칼 가진 자, 메드로가 이를 막았다.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행동한 메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제 배신이 부인하기까지 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내세울 때 반드시 세상의 길로 가게 된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0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노골적으로 위협하며 반감을 드러내는 젊은이들을 보며 선교가 영적 전쟁임을 실감했다. 부다가 자기에 신이라고 한결같이 소리 지르며 우기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을 지키는 한 가정을 만나게 하셨다.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는 만민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부통껏 안고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해 마음에 위축을 받았지만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먼저 떨지 않고 겁내지 않았다. 패배자 같으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자로 거룩한 용기를 얻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최선을 다 하시고 당신이 구원자임에도 수많은 배척을 당하셨지 않은가? 주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영혼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실이며 사실임을 담대히 선포 또 선포해야 한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을 선교를 통해 누리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우병희(집사, 20교구)

전도지를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공인들이 늘 주시하며 따라다니는 곳, 늘 긴장을 해야 하고 행여 신고를 하면 어쩌나 하고 휴대폰으로 전화만 해도 도망쳐 나와야 하는 나라. 그 모든 것이 두려워 그곳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 주시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을 감동시키어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도 부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농번기로 시간에 쫓기면서도 저희를 반갑게 맞아들이며 흙 묻은 손으로 차를 대접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깨끗한 영혼들, 주님은 저희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어려운 곳일지라도 복음은 전파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간구할 때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명환(권사, 5교구)

현재 지역 중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13일(목) ~ 10월 21일(금)	22교구 9팀	김영자

새가족운영위원회

십자가만이 능력

“저는 이번 선교팀에서 가장 바삭하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쓸모없는 팀원이었습니다. 이런 최빈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역사하심에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팀원들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평할 게 없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는 것에 저는 너무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이것은 사역 평가의 때 새가족 안 분이 하신 고백이다. 주님께서는 이분의 고백을 통해 자기부인에서 오는 참 자유함을 보게 하시고, 이분의 진실된 회개 앞에 나와 외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부끄럽게 하시어 회개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십자가 사랑만이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었다. (전매숙 집사)

“선교를 할 때부터 나에게 특별한 기회였다. 몇 번이고 필장과 교구에서의 선교의 권유를 받을 때마다 꼭 주님께 빛진 자가 된 느낌이었다. 실로 5년 만에 가는 선교였고 전도와 준비과정과 팀원들 구성 등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이런 나에게 사탄이 역사하여 떠나기 며칠 전 심하게 아르기 시작했다.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기도 동역자들의 뜨거운 기도에 힘입어 사역지를 향해 떠날 수 있었다.

(정현아 권사)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어 가는 곳마다 현지인들을 선택하여 파수꾼을 세워놓으셨다. 첫 번째 사역에서 만난 파수꾼은 한국에서 거주했던 인 두인이었다. 그들은 우리 팀원들을 배척하기는커녕 우리를 환영하고 선대해 주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 않으셨다면 일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무엇이었기에 이곳까지 보내서 현지인들에게 환대를 받게 해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감사했다. (최은영 성도)

“복을 전할 때 때로는 한낱의 무더위와 많은 나이에서 오는 육신의 피곤함으로 피로를 때로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네발 영혼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나이와 날씨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나의 어눌한 입술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발목이 부어 불편한 다리도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하셨다. 나는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었다. 고집도 세고 자기 싶은 일은 절대 안 했는데, 주님께서는 충언교회로 인도하시고 선교지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셨다. 이제 나이가 많아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드릴 뿐이다. 선교 기간 내내 맘껏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었다. (박영환 성도)

“이번 새가족 네발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에 두신 교사와 새가족 총 8명이 팀을 이루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건을 보면 갈 수 없는 상황들뿐이었다. 그러나 팀 훈련 할 때에는 다르게 현지 사역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매일 평가의 때마다 회개와 감사 감격하는 팀원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김경남 안수집사)

“비록 뜨겁고 이글거리는 열대야 햇빛 아래서 굵은 땀방울과 먼지가 범벅되어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것은 최상의 안식신 같은 유익이었다. 왜 예수님은 남보다 죄를 지으며, 넘어지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나?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순진한 마음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잠깐 복음의 씨앗만 뿌리지만 옥토에 복음의 열매가 싹싹 맺어지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박경애 집사)

“예전에 다녀왔던 네발 선교는 예수님을 놓치고 믿을 없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신 은혜와 동시에 내게 아픈 선교였다. 그래서 너무도 가난하고 불쌍해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할 곳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직 외면하고 싶은 선교지였다. 그러나 주님은 새가족과 함께 가는 귀한 선교팀을 통해 나를 부르셨다. ‘어 어떡하지?’라고 주저하고 있는 나를 남편을 통해 순종하게 하셨다. (이시은 집사)

19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안약하고 부족해서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동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교구의 특징입니다.”라고 말하는 19교구. 각각의 색이 모여 하나가 되는 무지개를 담은 19교구에 총동원 전도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았다. 그곳엔 특별한 사람들이 보였다. 곧 믿음의 가정을 이룬 한 예비 가족과 울음줄망 귀여운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 믿음의 가정’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을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사랑하는 김은정 자매에게

유난히도 예수님 생각이 자주 나던 어느 날, 우연히 당신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당신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언젠가에는 새신자로서 아, 작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요.



2011. 10. 02. 영태경 형제로부터

Q. 전도란 무엇이며, 그 전도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 저는 전도를 못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나 봐요. 남동으로 하는 이야기기긴 하지만 사실 아이들을 남동으로 이 세 아이들을 전도한 것이기도 할 테니까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권왕림 집사)
- 전도를 실제로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저의 삶 속에서의 전도를 찾아본다면 지금 예배 등 시종역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자 약속인데, 그 사명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인데, 꼭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김종식 집사)
-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야기에 줄 거예요. (김서은)

Q. 총동원 전도집회를 맞아 오늘 새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권왕림 집사)
-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힘들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놓치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김종식 집사)

최재·한영아 기자

은혜의 샘물

나는 십자가로 바라보지 않았다

나에게는 짐을 나간 한 친척 형이 있다. 이 형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우리 집에서 함께 일던 정도를 같이 살다가 스스로 나갔었다. 그 때 내 나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그후 우리 20여 년 만에 그 형은 목에 큰 종양을 갖고 우리 집을 찾아 왔고, 결국 자유분방하게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나갔다. 그 때 나는 주님을 전하긴 했지만 온전하게 전하기가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고, 마음속에는 그 형에 대한 불만과 정죄감이 가득했다. 오늘 위임목사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고, 나는 듣는 내내 그 형 생각에 눈물을 그칠 새가 없었다.

나는 형이 돌아왔을 때 전혀 기쁨이 없었고, 그 형에게 줄 용돈과 내가 챙겨줘야 할 부분을 먼저 생각했으며, 그저 형식적인 주님을 전했다고는 생각했었다. 마음속엔 부끄럽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마음뿐이었다. 우리 부모님과 하다 못해 나의 아들도 기뻐하는 형의 귀환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다던 내가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나를 스스로가 외식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하셨다.

나는 십자가로 형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그 형을 비판했지, 사실 사랑이 없었다. 복음은 사랑이다. 나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로 없었고,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보혈의 능력도 나는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나는 세상의 나를 자랑하고 내 의로 가득 차 형을 정죄만 했지 그 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 복음을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아는 지의 모인도 갖추지 못했기에 기쁨은 내내 내 입술과 마음에서는 불만만 가득 차 있었고, 감사도 없었으며 더불어 그 형을 품을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었다.

방금 전화를 해 보았지만 당분간 수신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언젠가 주님이 나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언단하시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때까지 나는 오직 기쁨에 힘쓰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길 잃은 영혼까지도 간절한 마음으로 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임동현(전도사, 대학부)

*2011년 9월 25일 3부예배 ‘잃어버린 기쁨’ (목 15:25~30) 말씀을 듣고



TO. 이 편지를 읽게 될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중천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저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신가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가요? 가족도 친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고 있으신가요? 혼자 마을 아파하며 세상을 비난하거나 혹은 아무런 의욕 없이 쓰러져 있진 않으신가요?

이럴 때, 주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돈과 명예가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음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으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킬 수 주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P.S.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FROM. 함께 주님의 자리에 있길 소망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정년1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마가복음 4:24)

제3차 청지기훈련을 기대하며



유지현(이하 유, 대학부)



김현성(이하 김, 대학부)



아hn현(이하 현, 청년부)



하승우(이하 하, 청년부)



이은연(이하 이, 청년부)



유준현(이하 유, 청년부)

Q. 첫 청지기훈련이 기억나는지, 특별히 은혜 받았던 훈련과 말씀은?

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청지기훈련에 참여했다. 고2가 되어 금요일 아침 집 외출을 드리면서 찬양과 말씀의 달콤함을 알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청지기훈련을 받으면 말씀을 한 차원 더 깊이 있게 파고들을 수 있어 좋았다.

양 대학생 때 처음 들었던 청지기훈련은 말씀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말씀이 참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중학생 때부터 청지기훈련에 참여했고, 특히 예수님의 기도란 주제의 청지기문헌에서 은혜로웠던 책자 겹표지와 강렬한 메시지가 기억에 남는다.

Q. 청지기훈련이 좋은 점은?

이 청지기훈련은 내가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전 교인이 언약을 초월하여 말씀에 녹아지게 만드는 고마운 시간이다.

이 청지기훈련 때마다 두 자녀를 데리고 버스과 지하철을 갈아타며 임들에게 참여하지만 늘 은혜로 종만해져서 집에 돌아온다. 목사님이 청지기훈련 말씀을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청지기훈련이 다가오면 회개를 통해 말씀을 들을 깨끗한 길로써 미리 준비하게 된다.

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청지기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참 좋다. 청지기훈련을 통해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게 해준다.

Q. 어떠한 마음으로 청지기훈련을 준비하고 있나?

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쓰시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 어두어라겠다.

김 청지기훈련 말씀을 미리 공부해 보고 싶다. 문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목 사들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임하시길 비교해 가면서 살포리 적용하면 좋 을 것 같다.

양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의와 열심을 드러내며 주 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셨다는 은혜를 잊고 지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 간지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이번 청지기훈련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 로 친구를 초청해 같이 들을 계획이다.

이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업고 있던 전신갑주를 호트려지지 않게 다시 재 정비하는 시간으로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다. 청지기훈련이 바로 영혼구 원의 실천이 되도록!

이 죄인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주님이 아닌 부족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다시 세워주시길 믿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영적 부흥을 기대한다.

염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청지기로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이번 훈련에서 어떻게 채우고 싶은지?

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필요하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머리로 아는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변화 받고 삶으로 양육하 는 사람이 되도록 이번 훈련을 통해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고 싶다.

김 늘 머리와 입술로만 회개를 했지 정작 행동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영 적 계몽을 피우지 않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 받 고 싶다.

양 돌아온 탕자의 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타인을 판단하고 정치하 기 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과 영적 꾸짖음을 할 수 있는 사람 으로 거듭나고 싶다.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100% 순종하여 실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날을 후회 하기보단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고 싶다.

이 아이들이 마치 내 것인 양 권리 를 내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양이 아닌 것처럼 내뱉개치고 성실하지 못했다면 것이 사실이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 수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이 맡 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교사 로 변화되고 싶다.

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믿 음의 습관을 이루기 위한 마음 이 부족하다. 이번 청지기훈련 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말 씀 읽고, 성도 간 교제와 전도 에 임하는 가장 중요 완전한 습 관이 베이게 마음을 다잡는 시 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허재·오남구 기자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과과정	교구	인도자
2866	김수연	영아부	24	송생
2867	박창호		2	조연숙
2868	윤해진	양육부	22	이윤자
2869	이정민	양육부	23	홍미화
2870	정혜영	청년1부	6	
2871	안영애		13	황정희
2872	김재현	사람부	25	유호순
2873	김도현	고등부	5	정진곤
2874	백심자	양육부	20	김영희

